

eloquence
Magazine



For / About
Creators

October / November 2013

12,000 KRW

67



Mike Brodie: A Period of Juvenile Prosperity

Korean Exhibition Highlights

al hierarchy. Her multimedia work uses found objects as well as highly skilled modeling to refer to known forms and physical anatomy with the purpose of transforming them in a way that reveals their powerful psycho-social meaning.

Bharti Kher is widely known for both her large sculptural forms and bindi works. Alternating between abstract imagery, sculptural installations and deeply unsettling yet poetic depictions of human/animal hybrids, Kher's work disassembles the world in which we live. In her drawings she has subverted the "bindi". Applied to the forehead by Indian women, the bindi has multiple symbolic meanings including as a metaphor for the third eye. In her drawings, Kher alludes to both the cultural and conceptual possibilities of the bindi using them as an unorthodox and highly evocative medium. She applies them one by one to create spectacular layers of color and texture that challenge our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painting.

* * *

국제갤러리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계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바티 커(Bharti Kher)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 2관(K2) 및 3관(K3)에서 소개되며, 조각과 평면 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바티 커의 개인전 <Anomalies>는 다양한 연작들로부터 엄선된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관점을 제공해준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기억, 문화적 신화 그리고 사회적 계급체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해왔다. 그녀의 멀티미디어 작품들에는 '발견된 오브제' 즉 우연히 주워온 물건들뿐 아니라 매우 정교한 기술로 이루어진 조형물들도 사용이 되는데, 이는 잘 알려진 형태나 신체적 부분들을 환기시키고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강력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바티 커는 대형 조각 형상들과 '빈디' 작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의 작업은 추상적 이미지, 조각적 설치, 그리고 매우 불안정하면서도 시적인 인간/동물 혼성체의 묘사 등을 오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해체해나간다. 그녀의 드로잉들에서 그녀는 다채로운 색의 빈디 점을 사용한다. 인도 여성들의 이마에 붙이는 빈디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중에는 '세 번째 눈'이라는 은유가 포함되어 있다. 커는 빈디를 비정통적이고 고도로 함축적인 매체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의 문화적이고 개념적인 가능태들을 떠올린다. 그녀는 빈디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감으로써 회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각방식에 도전하는 색채와 질감의 놀라운 레이어들을 만들어낸다.



Bharti Kher : Anomalies
September 5 – October 5
Kukje Gallery
www.kukjegallery.com

Kukje Gallery presents *Anomalies* the first solo exhibition of Bharti from September 5 through October 5. Bringing together selected works from multiple series, *Anomalies* provides a broad overview of the artist's practice. Through her work, Kher frames questions of memory, cultural myth and soci-

